

# 생산자 주도의 계약사육을 주도했다

정용길 / 예원농장 대표

**그**렇게도 시끄럽고 다사다 난했던 80년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무역적자국가에서 흑자국가로,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로,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변모해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80년대.

그러나 우리 육계업자는 활기찬 성장과 호황의 가슴뿌듯함 한 귀퉁이에 미련과 아쉬움을 남긴 안타까운 80년대를 보내왔다.

국가경제가 강해지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건만, 이제는 커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희생을 강요받아 왔던

농축산업이 더 희생을 해주어야 한다니.

한평생 육계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잠깐씩 반짝이는 가격상승에 모든 희망을 걸고 노모부터 아이들까지 집안식구가 모두 매달려 발버둥 쳐오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건만 남아있는 전채산이 외상사료 부채보다 더 적은 빚투성이 육계농가가 전체의 40%가 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농축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또 하나의 파고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어떻게해야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계열화체계가 설득력있게 현실에 접

근하고 있다. 필요에 당위성을 갖고 추진력 또한 대단한 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계열화마저 그 방법론에서 우리 육계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어차피 계열화체계가 도입되어야 함은 시대적 흐름이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육계산업의 주인인 육계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이에 동참하기에는 그동안 축적된 육계업계의 불신풍조가 너무나 크게 자리잡고 있다.

계열화체계가 정착되면 육계업자는 계열주체에 종속되어 계열주체에 매달려야 하는게 아니냐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며 타협정신

이 부족한 우리 육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미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음이 사실이다.

협회, 정부, 업계는 계열화체계가 육계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체계가 정착되어도 계열주체가 정말 육계산업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업계발전과 육계업자를 위해 노력할지 아니면 육계업자가 어떻게 되든, 소비자가 어떻게 되든 계열주체의 이익만을 위해 육계산업 발전을 저버리거나 않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규모 부화장을 비롯한 몇몇 업체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육계업자와 계열주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단단한 신뢰를 쌓았는지 의심스럽다. 지금도 육계업자와 그들간에 병아리가격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생산원가의 2배나 되는 가격으로 병아리를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양계업을 해오면서 경험한 신뢰도, 도덕성 등을 보아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우

“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불가능한 일이**

**뭉쳐 협력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리 육계업자들이 그들을 불신하고 계열화의 동참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협회, 정부, 업계가 이러한 상황을 불식시켜 불안한 마음이 없이 계열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줄 믿는다.

육계 계열화사업을 생산자가 주도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몇년전부터 대구·경북지역 육계인들은 사육농가가 계열주체의 주인이 되면 생산자를 위한 계열화가 정착되리라 확신을 가졌었다. 그래서 대구·경북지역 육계생산자와 유통상인이 합작으로 (주)대경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주)대경을 중심으로 닭수집, 가격결정을 주도해 왔고 89년 6월부터 사료 공동구매 등 계

열화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왔다. 그 결과 오는 90년1월부터 계약사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약은 사육농가가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렸으며 사육농가의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육농가들도 주체의식을 갖고 계열화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육계업이 안정되게 발전해나가리라 생각한다.

나를 버리고 전체의 이익을 위할 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나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그동안 필자가 단체를 운영해오며 절실히 경험했고, 또 경북지부 전체 회원들도 경험하고 있다.

육계업계 전체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다.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불가능한 일이 뭉쳐 협력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육계인들은 그동안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기어히 이 일을 해냈다.

이제 닭고기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전 육계농가의 부채를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닭고기 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희망의 새해 90년을 벽찬 가슴으로 설계하며, 육계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전환기 90년대가 되리라 확신한다. **양계**